정보

Claude Debussy: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FL 87

개요

- 작곡가 : Claude Debussy (1862–1918)
- 작품명 :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FL 87
- 작곡 시기 : 1891년 무렵 구상, 자필 총보에 1892년 표기, 1894년 9월 관현악화 완료
- 초연 : 1894년 12월 22일, 파리 Salle d’Harcourt,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연주회
- 초연 지휘 · 플루트 : Gustave Doret · Georges Barrère
- 헌정 : Raymond Bonheur
- **IMSLP**: https://imslp.org/wiki/Pr%C3%A9lude_%C3%A0_l%27apr%C3%A8s-midi_d%27un_faune%2C_CD_87_%28Debussy%2C_Claude%29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r%C3%A9lude_%C3%A0_l%27apr%C3%A8s-midi_d%27un_faune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서 출발해 1894년에 완성한 관현악곡이다. 이 글이 다루는 관현악 원곡 전곡은 별도의 내부 악장 없이 이어지는 단악장 작품이다. 1894년 파리에서 처음 연주되었고, 1912년에는 같은 음악을 사용한 니진스키의 발레가 만들어졌다. 시에 대한 음악의 응답과 뒤에 이루어진 무대화는 서로 다른 작품사의 사건이다.

출판 정보와 자료

이 작품의 구상과 총보의 완성 시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파리 국립도서관(BnF)이 보관하는 자필 총보 MS-17685의 표제에는 ‘92’, 끝에는 ‘Septembre 94’가 쓰여 있다. 도서관은 작품 전체의 연대를 1891년부터 1894년 9월까지로 잡는다. 음악학자 드니 에를랭은 1890–91년 말라르메와 추진했던 무대 협업을 발단으로, 본격적인 작곡과 관현악 총보의 완성은 각각 1892년 무렵과 1894년 9월의 일로 구별한다. 자필에 남은

헌정은 친구인 작곡가 레몽 보뇌르를 향한다.

관현악 총보와 드뷔시 자신의 두 대 피아노용 편곡은 모두 1895년 10월 파리의 E. Fromont에서 출판되었다 . 관현악 초판의 판번호는 E. 1091 F.다. 출판 당시의 총보를 오늘의 악보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초판에는 판각 오류와 관현악 파트와의 불일치가 있었고, 드뷔시는 약 1908년 인쇄 총보 한 부에 음고 ·템포 · 아티큘레이션과 첫 플루트의 숨표 등을 고쳐 적었다. Douglas Woodfull-Harris가 편집한 Bärenreiter BA 8841은 그 수정본도 대조한 현대 교감판이다 . 따라서 연주자가 어느 판의 총보와 파트를 쓰는지는 세부
지시를 읽는 데 실제 차이를 만든다.

소요 시간

약 10분. 지휘와 호흡에 따라 10분 안팎에서 달라지지만 , 작품은 중단 없이 이어진다.

편성

목관: 3 Flûtes, 2 Hautbois, Cor anglais, 2 Clarinettes en La et en Si♭, 2 Bassons
금관: 4 Cors en Fa
타악기: Cymbales antiques
하프: 2 Harpes
현악: Violons I, Violons II, Altos, Violoncelles, Contrebasses

고대 심벌즈는 음높이가 정해진 작고 맑은 소리의 악기이며, 이 곡에서는 미와 시로 조율한다. 트럼펫 ·트롬본 · 튜바와 팀파니는 쓰지 않는다. 그 대신 플루트, 잉글리시호른 , 두 대의 하프와 나뉘어 연주하는 현악이 색채의 폭을 만든다. 큰 관현악의 압력보다 악기 사이의 거리와 소리의 사라짐이 중요한 편성이다.

시에서 관현악곡으로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는 한 목신의 독백이다. 그는 님프들과 만난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만, 실제로 겪은 일인지 꿈에서 본 일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기억과 욕망이 서로를 흐리게 만든 끝에 그는 다시 잠든다. 목신이 부는 피리는 음악의 첫 플루트를 연상시키지만 , 악기마다 시 속 인물 하나씩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작품이
오히려 좁아진다.

처음부터 독립된 관현악곡만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1890–91년에는 말라르메의 시를 무대에서
낭독하는 공연에 음악을 붙이려는 협업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893년에는 전주곡에 간주곡과 마지막 패러프레이즈를 더하는 더 큰 구상이 광고되었다 . 현재 완성된 작품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전주곡뿐이다 . 뒤의 부분들이 작곡되었다가 사라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 연주되는 곡을 잃어버린 여러 악장의 첫 악장처럼 소개할 수는 없다.

드뷔시는 1895년 10월 10일 편지에서 시의 각 행을 바짝 따라가기보다 그 ‘전반적인 인상 ’을 옮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시와 음악의 관계가 단순한 분위기의 유사성에 그치지도 않는다. 그는 시가 고조되는
움직임을 음악이 따르고, 결말은 시의 마지막 행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독자는 이 두 말을 함께 기억할 만하다. 음악은 시를 해설하지 않지만, 시를 읽은 뒤 남는 감각과 시간의 흐름을 새로 조직한다.

작품 구성: 첫 선율이 바뀌며 돌아오는 길

작곡가가 적은 전체 빠르기 표시는 Très modéré이며, 음악은 110마디의 한 흐름을 이룬다. 첫 플루트 선율은 올림다에서 솔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오는 반음계적 움직임으로 시작한다. 두 음 사이의 증 4도는 안정된 장 · 단조 선율의 출발과 다른 느낌을 준다. 아직 화성이나 박의 무게가 뚜렷해지기 전에 플루트가 먼저 들리므로, 청자는 이 선율을 완성된 주제의 선포라기보다 말문을 열며 방향을 찾는 소리처럼 듣게 된다.

이어 하프와 호른이 응답하고, 현악의 떨림과 목관의 색채가 더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선율이 같은 모습으로 여러 차례 복사되는 것이 아니다. 곁에 놓이는 화성이 달라지고, 선율을 받는 악기가 바뀌며, 배경이 조밀해질 때마다 처음의 음형이 새롭게 들린다.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선율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곳에서는
플루트 혼자 말하던 음악에 다른 목소리가 생긴다. 하프가 선율을 줄곧 떠맡는다고 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빛을 더하거나 움직임을 이어 준다고 듣는 편이 정확하다.

중간으로 가면서 음악의 걸음이 활발해지고 , 좁은 반음계적 움직임과 대조되는 넓은 호흡의 선율이 나타난다. 내림라장조로 펼쳐지는 현악 중심의 큰 선율은 앞서 악기들 사이로 흩어지던 소리를 한동안 길게 묶는다. 이 대목을 독립된 ‘두 번째 악장 ’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 처음의 불확실한 선율에서 이미 자라난 음악이 가장 넓게 열린 순간이다. 그 고조가 지나간 뒤 첫 선율이 돌아와도 출발점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플루트 곁에는 앞의 여정을 거친 오보에와 독주 첼로의 목소리도 닿는다.

마지막에는 하프의 반복과 고대 심벌즈의 가벼운 울림이 남고, 낮은 현악의 여린 피치카토가 소리를 닫는다. 큰 합주로 결론을 선언하지 않는 종결은 목신이 다시 잠든다는 시의 마지막 움직임과도 통한다. 다만 어느 악기의 한 음을 님프나 목신의 특정 몸짓으로 지정할 근거는 없다. 시작의 플루트를 기억한 채 이 조용한 종결을 들으면, 같은 선율이 돌아왔어도 그 주변의 시간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1894년의 연주와 1912년의 무대
1894년 12월 22일 파리 Salle d’Harcourt에서 귀스타브 도레가 국민음악협회 연주회를 지휘했다. 초연의 플루트는 조르주 바레르가 맡았다. 첫날 곡이 앙코르되었고 같은 프로그램이 23일에도 열렸다. 말라르메가 참석한 날은 첫날이 아니라 이튿날이다 . 그는 그 공연 직후 드뷔시에게 편지를 보내, 음악이 자신의 시와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그 바깥으로 나아갔다고 감동을 전했다. 시인이 자신의 작품이 ‘그대로 재현 ’되었다고만 칭찬한 것이 아니다.

1912년 5월 29일에는 바슬라프 니진스키가 이 곡에 안무한 발레 《목신의 오후》가 파리 Théâtre du Châtelet에서 공연되었다 . 피에르 몽퇴가 지휘했고 레옹 박스트가 무대와 의상을 디자인했다 . 발레의 목신과 님프가 무대에서 보이는 행동은 관현악 초연으로부터 거의 18년 뒤에 생긴 해석이다. 그 무대의 줄거리를
거꾸로 1894년 악보의 숨은 장면표로 읽지 않아야, 한 곡이 시와 무용에 각기 다르게 응답한 역사가 보인다.

연주에서 들을 것과 음반의 두 방향

이 곡의 첫 문제는 유명한 플루트 선율을 무조건 흐릿하고 느리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플루트 연주자 Jacques Zoon은 레이나 소피아 음악학교의 공개 수업에서 첫머리를 한층 여리게 시작하도록 지도했다. 첫 두 마디
뒤에 급히 큰 숨을 보충하는 대신 남은 공기를 쓰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억지로 크레셴도하지 않으면서
소리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었다 . 뒤따르는 8분음표의 박도 살폈다. 이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대

수업의 기록이지 드뷔시가 초연자에게 남긴 지시가 아니다. 그래도 약한 소리와 정확한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연주상의 어려움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관현악 전체에서도 흐름과 색채의 균형이 갈린다.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관현악단의 1976년 12월 녹음은 필립스 음반으로 남았다. 평론가 콜린 클라크는 관악의 연주와 특히 섬세한 끝맺음을 높이 평가했고, BBC Music Magazine도 풍부한 관현악 음향과 섬세함을 함께 장점으로 들었다. 음색이 넉넉히 펼쳐지는 동안에도 마지막 소리가 거칠게 굳지 않는 연주를 살필 수 있다.

피에르 불레즈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DG 음반은 다른 비교점을 준다. 리듬과 악기 짜임새의 명료함을 인정한 BBC Music Magazine의 줄리언 러슈턴은 동시에 이 곡에 필요한 나른함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견해를 정답처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묻게 하는 좋은 대비다. 하이팅크의 넓은 음향과 불레즈의 선명한 윤곽 사이에서 이 작품은 정해진 풍경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첫 플루트의 자유로워 보이는 호흡이 끝까지 유지되는 리듬과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는지가 각 연주를 가르는 지점이다.

주요 자료

파리 국립도서관 , 작품 표목 FL 87 및 자필 총보 MS-17685: 작품 연대, 헌정, 초연, 초판과 자필의
날짜.
Denis Herlin, Henle 판 서문: 말라르메와의 초기 협업, 출판 과정, 22·23일의 연주와 시인의 편지.

Bärenreiter BA 8841 판본 설명: 초판 오류와 드뷔시의 약 1908년 수정본.

Claude Abromont, 파리 음악원 연구: 시에 관한 1895년 드뷔시 편지와 음악의 진행에 대한 분석.

Kathy Henkel,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해설 및 Marc Mandel, 보스턴 심포니 해설: 편성, 악기의
응답과 음악의 흐름.

레이나 소피아 음악학교, Jacques Zoon 수업 요약: 플루트의 첫 호흡과 리듬에 관한 지도.

Colin Clarke의 하이팅크 음반 평, BBC Music Magazine의 하이팅크 추천, 줄리언 러슈턴의 불레즈

음반 평: 두 녹음의 비교에 사용한 비평.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56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6:56 UTC by 안준영